

挺身隊 日 정부主導 첫立證

戰時內閣관여 資料발견 의미

태평양전쟁중 日本의「南
方總軍」으로부터 挺身隊
즉「南方總軍」이 모집과
송환하인부의 모집과 파
견을 요구했다는 것은
전을 요구받은 臺灣軍사령
東京의 軍수뇌부 또는 그
판명된 것이다.

부과전에 관여했고 일본정
부수도로 그것이 행해졌을
에를알았다고 말하고 진
상규명과 피해자보상을 일
본정부에 요구했다.
주오(中央)대학 요시미
요시아키(吉見義明)교수도
『역시 위안소는 軍이 전면
적으로 맡아 관리했다. 이
점이다.』

軍만 관련 "발뺌 虛偽로 판명" 日 학계 "賠償책임 못 면한다"

이 자료의 의미에 대해
는「관여」의 차이를 넘는것
일본 아이치(愛知)縣立大
다나카 히로시(田中宏)교
수를「국가의 수뇌가 위안
이 자료를 발견한 이토

히데코(伊東秀子)社會黨의
원은 이를 토대로 중의원
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사
실확인과 피해보상을 강력
촉구키로 했다.
일본정부는 이들 자료를
포함, 그동안 발견된 종군
위안부 관련자료들을 4월
경 韓國정부에 전달할 방
안이다.
앞으로 일본정부가 진상
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배
상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
주목된다. 배상문제에 대
해 일본정부는「재판의 결
과를 기다려 보겠다」며 개
인배상 이외의 代案도 점
토할 것임을 시사해왔지
만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
고성실한 자세를 요구받
지 않을 수 없게 됐다.
〈東京 李洛淵〉

太平洋전쟁 일으킨 최고책임자

東條英機는 누구인가

관대 당시 수상 겸 陸軍相
(陸軍大臣)도조 히데키(東
條英機)에게 보면 비밀전
보통이 발견됨으로써 정신
대무제는 새로운 국면을
맞고있다.
일본정부는 금년에 들어
와서야 戰後처음으로「당
시 軍이 어떤 형태로든 관
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」
고 인정했지만 이번에 새
로발견된 자료들은 정신대
문제에 대한「軍의 관여」
를 훨씬 뛰어넘는 日帝정
부수뇌부 차원의 개인 사
실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

도조 히데키(東條英機) 戰犯으로 처형된 장본인.
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日本육사 17기출신의 군
최고책임자로서 戰後 A급 인으로 1940년 陸軍相

(陸軍大臣)에 취임, 美日교
섭에서 일본 육군의 강경
론을 대표했으며 中國에서
의 일본군 철수에 반대하
면서 1941년 고노에
후미마로(近衛文麿)내각을
타도했다.
이러 수상에 취임, 육군
상과 내무상을 겸임하면서
對美絶전을 감행했다. 특히
44년 마셜군도를 함락시킨
뒤에는 참모총장까지 겸
임, 일본역사상 유례없는
권한을 한 손에 쥐었다.
그러나 戰況이 불
리해져 시이판석이 연합군
에 의해 함락된 뒤 내각과
함께 총사퇴했고 45년敗戰
後에는 연합군에 체포될
것을 두려워해 권총자살을
 기도했으나 실패, 결국 국
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
전범으로 지목돼 48년12월
2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.
아직도 많은 일본인은 야스
쿠니(靖國)神社에서 그를
참배하고 있다.



絞首刑 선고받는 東條 1948년 11월12
일 東京國제군사재판에서 내려진 교수형판
결을 통역이어폰을 끼채들고 있다. 그해 12
월23일 그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.